

## 한·일 문화교류의 확대와 일본어 교육의 방향: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어 교육

문 명 재  
(한국외국어대)

---

Moon, Myung-Jae. (2000). Toward the expansion of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and Japanese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3, 33-43.

The education of Japanese in Korea will be heavily influenced by the recent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educational system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we be prepared to adjust ourselves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study the language of a country is to understand her culture or to acquire the means to understand it.

Japan has made steady efforts to expand the education of Japanese in other countries as a way of helping foreigners better understand Japan and the Japanese. There have been civilian programs for that particular objective as well as the Government-directed projects such as financial supports for a large number of foreign students.

Paying attention to the Japanese efforts, it is time for us to reexamine our educational system of Japanese. We should not forget the past history in relation with Japan. But we should not ignore the present reality, either. We are witnessing the ever-increasing inflow of Japanese culture in Korea. We need to realize that an objective and precise understanding of Japan and the Japanese culture is needed for the best interest of our country. That is the reason why I argue for a search for a new method of Japanese education.

---

## I. 머리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화시대라는 말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위성통신과 인터넷 기타 정보전달매체의 발달로 국경 없는 문화교류의 시대가 열렸다. 특히 한·일 간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동안 닫혀 있던 한·일간 문화교류의 확대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양국간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한·일간의 변화는 일본어에 대한 위상변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 동안 좋지 않았던 대일감정은 일본어교육에 대한 소극적 자세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일감정과 별도로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본어 학습자의 세대와 관계없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젊은 세대는 대중문화의 신속한 흡수를 위해서, 기성세대는 경제 관광 등 실생활과 관련된 필요에 의해서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어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고 안팎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교육의 현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와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II. 한·일 문화교류의 흐름과 의미

### 1. 한·일 문화교류의 흐름과 교훈

일본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교육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먼저 한·일간 문화교류의 역사, 각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한·일 문화교류의 흐름에 있어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시기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첫째 고대한국의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와 일본의 야마토·아스카시대로, 이 시기에는 불교와 한자 등 한반도에서 많은 선진문화가 일본에 전래되었고 이것들은 일본 고대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두번째로는 조선시대와 토요토미시대의 임진왜란 및 도쿠가와 에도막부시대의 통신사에 의한 문화교류시대를 들 수 있겠는데, 이 때에도 한반도의 인쇄술 도자기 학문 등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일본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번째로는 한·일합방에 의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시대이다. 이 때는 식민지정책에 의한 문화적 동화정책과 국내거주 일본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문화적으로도 일본에 식민지화 되었던 시기인데, 일본문화의 한국에 끼친 영향은 그것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네번째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조성된 양국협력관계를 거쳐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활발한 문화교류가 예상되는 최근이 되겠는데, 특히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그간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비개방의 원칙에서 문호개방으로 선회함으로써 활발한 문화의 상호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문화교류의 역사는 한국인이 일본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꺾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과거 일본에 대한 문화전수자로서의 자부심과 식민통치시대의 피해의식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부심은 상대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괴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오늘날 일본대중문화의 앞선 오락성 상업성은 우리 젊은 층의 선호와 동경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전통문화에 있어서도 일본은 보존과 홍보의 노력으로 높아진 국제적 인식을 얻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뿌리깊은 자부심이 크면 클수록 반성과 부끄러움 또한 커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거에 대한 향수와 현실의 격차는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 2. 한·일 문화교류의 확대와 의식변화의 필요성

최근의 한·일 문화교류는 우리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개방정책에 의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98년 10월의 제1차 대중문화개방과 1999년 9월의 제2차 개방에 이어 금년 6월 제3차 개방이 발표되었고, 지난 9월 23일 열

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남은 방송분야도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더불어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방송분야까지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고, 그 동안 묶여 있던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방송광고 등이 전면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기모노를 입은 탤런트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 엔카가 안방에 흐르게 되며 일본 CF모델이 선전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그리 멀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한국어를 일본대학입시센터시험(한국의 수능시험)의 선택과목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대한 답례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 간의 문화개방 및 교류의 확대는 이제 거스르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중심에 언어의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문화의 일부이고 문화의 전달 및 교류는 주로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교류의 급류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문화교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바탕에서 서로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시대에 보여 주었듯이 강압에 의한 문화제국주의는 양국의 불행한 관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종교와 사상 및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강요와 확산은 인류에게 수많은 불행한 시기를 겪게 했음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한일합방과 같은 과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웃나라끼리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양국관계는 불행을 초래했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의 바람직한 문화교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와 정보의 공유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었다. 비근한 예로, 수년 전 우리 나라의 소위 명문대학 일부에서 입시과목가운데 일본어를 배제시킨 일이 있었는데, 일본어문학은 학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리 나라의 대학이 일본 알기를 소홀히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당시 일본의 신문지상에서는 일본의 국공립대학들이 한국관련강좌를 늘리고 있음을 보

도하고 있었다. 냉철히 비교해 보건대 현재 한·일 양국간에 일본의 한국 연구와 한국의 일본연구를 양적·질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측이 우리보다 매우 앞서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을 더 많이 아는 일본은 한국을 더 연구하고, 일본을 잘 모르는 한국은 일본 알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상호 이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일본의 참모습을 알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 Ⅲ. 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 교육의 방향

#### 1. 일본어교육의 현황과 교과과정의 방향

우리 나라 대학에서 일어일문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된 것은 1961년 한국외국어대학에 일본어과가 개설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국제대학에도 일어일문학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1973년에는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로서 일본어 과목이 도입되면서 다른 주요외국어와 함께 일본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초창기에는 어학교육에 중점이 두어졌지만 1973년에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에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어문학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에 유학한 연구·교육 인력이 돌아옴으로써 학문적인 성과가 대학의 교과과정에도 다양하게 반영되게 되었다.

돌아보면 대학에서의 일본어교육의 역사는 40년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고, 지금은 4년제와 2년제 대학을 합하여 200여 대학에서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만 해도 100여 대학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일본어교육은 1973년에 제3차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로 포함됨으로써 시작되었고 당시 130개교에서 현재는 1125개교로 늘어났으며 학습자 수도 다른 제2외국어

의 경우를 훨씬 능가하는 160만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어 교육기관이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에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교과과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목을 조사하여 이들 교과목이 지향하는 바의 성격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① 일본어 습득과목
- ② 일본문학 전공과목
- ③ 일본어학 전공과목
- ④ 일본지역학 전공과목
- ⑤ 일본어교육 전공과목

이 가운데 일본어 습득과목의 지향하는 바는 실용적 측면의 요구충족이 되겠고 나머지 네 분야의 전공과목은 학문적 측면의 요구충족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학문적 측면의 요구충족을 위한 분야의 공부에서도 일본어 습득과목은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용성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어 습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어 습득과목은 위의 두 가지 교육목표에 모두 필요한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어 습득과목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큰 비중이 두어져 왔고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크게 달라짐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주어진 교육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학부제 및 다전공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 하에서는 일본어 습득을 위한 절대시간 자체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일본어 습득과목을 문화와 연결시켜 학습하는 교과목의 개설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의 전공별 영역과과 내지는 연계 전공과목의 개설이 점차 늘어갈 전망임을 생각할 때 단순한 강독류의 성격을 벗어나 다른 전공분야의 학습을 겸할 수 있는 이중적 과목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적 과목에 대해 몇몇 주요 대학의 교과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먼저 이수할 과목과 나중에 이수할 과목의 순서가 바뀌어 학

습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교과과정의 단절로 인한 계속성 결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주의를 요한다.

## 2. 교수법에 있어서의 방향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면서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다. 즉 언어는 그 나라 또는 민족의 문화가 반영되어 생성되는 법이고 따라서 올바른 외국어의 습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어 교육의 경우, 가르치는 자가 일본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 위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육효과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우리와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 비교적 유사한 면이 많고 일본어의 어법 또한 우리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는 반면에 쉽게 잘못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어 학습자가 쉽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보면 우리말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배경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일본어교육에 있어 문화와 공존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최근의 대입 수능시험 출제방향에 있어서도 일본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일정비율 출제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면 문화와 접목된 일본어 학습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에 있어 ‘感謝하다, 고맙다’의 경우 일본어로는 우리와 같이 한자어로「感謝(かんしゃ)する」라는 표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ありがとう」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 때 「ありがとう」는 한자를 섞어 쓰면 「有難う」가 되고 원래는 ‘있다’의 「有(あり)」와 ‘어렵다’의 「難(がた)い」가 연결된 형태에서 ㅓ음편현상이 일어난 형태이다. 따라서 원래 의미는 ‘있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을 때(또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일(또는 내가 입은 은혜)은 있기 어려운 대단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이 된 것이

다. 그리고 ‘미안하다’의 경우 우리말의 경우 ‘未安하다’와 같이 한 자어를 사용하여 ‘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어에서는 「濟(す)む」의 부정형인 「濟(す)まない」를 사용하고 직역하면 ‘끝나지 않다, 다 갚지 못하다’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상대방에게 입은 것에 대해 다 갚지 못하였다는 심정이 담겨 있고, 그 배경에는 남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바로 갚아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본인의 정서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서, 바둑이나 장기의 경우 우리말의 경우 모두 ‘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바둑은 「碁(ご)をうつ」라 하고 장기는 「将棋(しょうぎ)をさす」라 하여 직역하면 ‘장기를 찌르다’가 된다. 이 표현에서 「さす」는 기본적으로는 ‘뽕족한 것으로 어떤 한 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 즉 찌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본 장기의 알은 우리처럼 둥글지 않고 날씬한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어 앞이 뽕족한 말로 상대진영을 공격하므로 「さす(찌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장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역사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표현도 많다. 약자를 편든다든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判官(はんがん、ほうがん)びいき」라는 표현은 判官=源義經에 대한 편들기라는 뜻인데, 源平合戦에서 平家와 싸워 많은 공을 세우고도 형인 源頼朝에 의해 불우한 운명을 살다간 源義經에 대한 일본인들의 애정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또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라고 할 때 「弘法(こうぼう)にも筆(ふで)の誤(あやまり)(弘法대사에게도 붓을 잘못 놀리는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명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弘法(こうぼう)は筆(ふで)を選(えら)ばず、(弘法대사는 붓을 고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弘法대사가 平安(헤이안)시대의 이름높은 명필이었음을 배경으로 한 표현들이다.

일본인의 철저한 경제성을 읽을 수 있는 표현도 있다. ‘거래한다, 장사한다, 흥정한다’는 뜻으로 「取引(とりひき)」라는 표현을 쓰는데 직역하면 ‘잡아 끄는 것’이 된다. 원래 거래 또는 장사의 기본은 자리아타(自利利他), 즉 자기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원시적인 거래 형태인 물물교환을 생각해 보면 그 기본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사의 원칙은 [(이익이)가고 온다]는 의미의 ‘거래



(去來)’ 라는 말 자체가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取引(とりひき)」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쪽으로 잡아 끄는 철저한 상인정신이 느껴진다. 또는 회사의 고위직인 ‘중역(重役)’은 말 그대로 중요한 역할 또는 책임이 무거운 역할을 의미하나, 일본어로는 「取締役(とりしまりやく)」라 하여 ‘단속하는 역할, 관리하는 역할’이란 뜻이 되어, 철저한 조직사회로서의 회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의 바탕에는 江戸(에도)시대의 상인인 町人(초오닌)의 정신이 흐르고 있고, 바로 町人(초오닌)정신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신조어 또한 일본사회와 문화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다. 새로운 용어 또는 표현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생성되는 것은 어느 언어에서나 발견되는 것이고 일본어에 한한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경우 특히 신조어의 등장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고 이것은 일본인의 유연한 외래문화 수용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노래반주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カラオケ(가라오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カラオケ(가라오케)」는 거짓 또는 가짜를 뜻하는 「空(から)」와 「オーケストラ(오케스트라)」의 준말인 「オケ」를 합성하여 만들어졌다. 라디오와 카세트녹음기를 한 대에 동거시키고 「ラジカセ」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라디오(라디오)의 「ラジ」와 「カセットテープレコーダー(카세트테이프레코더)」를 줄인 「カセ」를 합성한 말이다. 극성스런 아줌마들을 나타내는 「オバタリアン(오바타리안)」은 아줌마를 뜻하는 「おばさん」의 「おば」와 ~人(인)을 뜻하는 「タリアン」의 합성어이고, 한 때 일본 신세대의 대명사였던 「ながら族(ぞく)」는 직역하면 ‘하면서族(족)’이 되겠는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의 「ながら」에 族(족)을 붙인 합성어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를 특징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사회현상과 더불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과 같은 용례는 수많은 예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IV.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의 방향

이제까지의 일본어교육은 교과서와 시청각교재(녹음기, 비디오 등)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자재의 발전에 따라 그 교육적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멀티미디어 교육이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전달매체를 동시에 사용하여 인간에게 정보전달과 인식을 돕는 교육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는 기존의 슬라이드 상영과 카세트, 교사의 설명을 곁들인 OHP의 사용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한 문자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의 자료가 복합적으로 저장·재생이 가능해 짐으로써 특히 컴퓨터에 의한 외국어교육이 멀티미디어 교육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보급과 정보 통신망의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각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멀티미디어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CALL이라 불리는 컴퓨터보조언어교육(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프로그램이 이미 몇몇 대학에서 도입·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교육은 문자 뿐만 아니라 정지화상이나 동영상 음성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교육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가부키(歌舞伎) 사도(茶道) 마츠리(祭り)와 같은 전통문화 또는 음식 주거 여행 등의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사전적인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각적인 자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교육을 위한 콘텐츠개발이 아직 미비되어 있다는 점과 학습자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인데, 앞으로 이러한 점만 보완된다면 문화와 공존하는 일본어학습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V. 맺음말

이상 문화와 관련지어 일본어교육에 대한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최근의 한·일문화교류의 확대와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은 앞으로 일본어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한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넓게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수단을 얻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 자기 나라를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국어의 교육과 확산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인 유학생 유치 등 정부 주도의 사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활발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을 주시하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어교육에 있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한·일간에 있어 과거는 있지 말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문화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